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 맞습니까?

국민의힘이 한미전략투자세 '알래스카 LNG가 포함됐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하며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한미 전략투자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 국내 법적 요건의 충족 조건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상업적 합리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가 투자하는 양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또한 국회 보고 당시 알래스카 LNG 사업비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마치 처음듣는 양, 정부가 국회를 속였다는 식으로 비난합니다. 그야말로 국민 사기극입니다.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을 미국이 바라는 대로 기정사실화하고, 국회 보고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함입니까? 결국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깎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무능한 것은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알래스카도, 원전 프로젝트도 끊임없는 협상이 진행될 것 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송금 제한, 상업적 합리성 조건과 국회 보고 절차 모두 우리 정부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조건이자 성공적으로 관철한 협상 성과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산업적 강점과 향후 전략적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 할것인지를 국회가 정부와 함께 국민적 힘을 모읍시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을 훼손하는 집단이 되지 마십시오. 고작 잠깐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흔들어드린 매파입니다.

2026. 10. 1. (목)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